

유구한 역사와 기름진 옥토의 김포

강 옥 / 자유기고가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한 김포시는 강화의 들목에 있어 외지인들은 이곳을 지나가는 길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포시 안 여기저기를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잘못됐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위로는 조강, 곧 한강을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서해와 접해 있는 만큼 장구한 역사 속에서 유물과 유적, 전설과 설화가 많이 남아 있다.

예로부터 기름진 옥토와 풍부한 한강 물은 김포반도지역을 쌀농사의 최적지로 만들어주었고, 그 결과 김포는 천혜의 축복 받는 부촌이 되었다. 하성면 지역에서 생

산되는 밀다리쌀(자광미)은 밥맛이 좋고 미질이 좋아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미가 될 정도로 김포쌀은 최상의 미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곳 김포는 남북 분단의 접적지로 개성과 토양이 같아 한때 6년근 고려 인삼재배지로 각광을 받았으며, 지금은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배와 포도가 주로 재배되고 있다. 주요 산으로는 북쪽으로 병인양요 때 격전지였던 문수산(376m)과 옛 김포의 주산이었던 장능산(150m), 가현산(220m) 등이 자리하고 있다.

남북한 대치사항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강하구를 거쳐 서울로 생필품을 운반하는 모든 상선의 중간기착지였고, 도매상인들이 불야성을 이루었던 조강포구의 취락은 군작전상 소개되어 지금은 흔적도 없다. 옛 이곳 사람들은 연세에 관계없이 풍년농사를 지은 탓으로 인심이 넉넉하고 순박하였다.

지금은 강화로 들어가는 새로운 다리가 생겨 보다 수월하게 오갈 수 있지만, 예전에 강화를 목전에 두고도 강화대교 앞에서 길이 막혀 많은 시간을 지체할 때 눈을 들어보면 산줄기를 따라 엇가락처럼 휘어 내려온 산성을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월곶면 성동리와 포내리에 걸쳐 있는 문수산성으로 강화대교가 있는 갑곶을 내려다보며 서 있다.

이 산성은 사적 제 139호로 지정되어 있다. 효종의 북벌운동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후인 숙종 20년(1694)에 축성되었으며 1812년에 대대적인 중수를 했다. 원래 문수산의 줄기를 이어 염하 해안까지 연결된 둘레 6km의 포곡형 산성이었으나, 현재 산줄기의 성곽을 제외하곤 대부분 파손되었다.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을 때 프랑스와 격전을 치룬 곳으로 익히 알려졌는데, 이때 해안 쪽 성문과 성벽이 모두 파손되었다. 최근에는 북문을 복원해 놓았다.

문수산성이 강화도의 수비와 관련이 있듯이 대곶면 신안리 덕포진도 강화도 수비와 무관하지 않다. 덕포진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자세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강화의 광성보, 덕지진 등과 같은 해인 숙종 5년(1664)에 축성된 것은 확실하다. 1980년에 발굴 조사된 결과 덕포진에는 돈대와 포대, 파수청 등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돈대와 포대 사이의 파수청은 포를 쏘기 위한 불씨를 보관하는 구실도 했는데, 주춧돌과 화덕 자리가 발굴되었고, 아울러 소포, 중포, 포탄 및 상평등보가 발굴되었다. 덕포진 주차장의 덕포진전시관에는 이때 발굴된 포 1문이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당시의 포는 사정거리가 대략 800m 정도로 알려지는데, 폭 1km가 넘는 염하를 수비하기 위해서는 강화의 덕지진, 광성보와 함께 이곳 덕포진이 절대로 필요했을 것이다.

덕포진의 가장 북쪽, 염하 건너 광성보의 용두돈대를 마주 보는 곳에는 손돌공의 무덤이 있다. 손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한다. 즉 1232년 고려 고종이 몽고의 2차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피난하는 중이었다. 왕은 조정을 이끌고 개경을 떠나, 사공 손돌의 배를 타고 예성강 벽란도를 거쳐 임진강과 한강 하류를 지나 강화도로 가고 있었다. 도중 현재의 대곶면

신안리와 강화도 광성진 사이의 해협이 협소하고 급류인 목에 닿게 되었다.

이곳은 상류에서 보면 강화의 용두돈대가 물길 앞으로 튀어나와 물길이 이어지지 않고 물, 곧 김포 쪽으로 닿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배가 자꾸 물 쪽으로 감을 의심하던 왕은 사공 손돌을 의심하여 죽이고자 했다. 사실 이곳은 얕하 물길 중 가장 물살이 심하여 현재도 물이 휘돌아 감을 볼 수 있다. 앞이 막힌 듯이 보이는 지형으로 처음 가는 사람은 뱃길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지라, 천도 하는 고종도 심기가 불편한 나머지 뱃길도 없는 곳을 향하여 노를 젓는 사공 손돌을 의심하여 수차 뱃길을 바로잡도록 하명하였으나, 손돌이 아뢰기를 “보기에는 앞이 막힌 듯 하나 좀더 나아가면 앞이 트이오니 폐하께서는 께넌치 마옵소서” 라고 아뢰었다.

그러나 고종은 마음이 초조하여, 손돌의 흥계로 의심하고 신하들에게 손돌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손돌은 죽음에 직면하고도 임금의 안전 항해를 바라는 충성에서 바가지 물에 띄우고 그것을 따라가면 뱃길이 트일 것을 아뢰 후 참수되고 말았다. 이후 왕의 천도 항해는 손돌의 바가지 안내대로 험한 협류를 무사히 빠져나와 목적지에 당도하였다. 왕은 늦게 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손돌을 후히 장사지내주고 그 뉘

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당도 세워주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 뱃길목을 지금도 손돌의 목을 벤 곳이라 하여 ‘손돌목’ 이라 부르며, 공(公)의 기일인 음력 10월 20일쯤이면 손돌의 원혼이 바람을 일으킨다 하였다. 이 때에 거센 바람을 ‘손돌이바람’, 이 무렵의 추위를 ‘손돌이추위’라 전해온다.

손돌공의 묘는 물 건너로 광성진을 보이는 덕포진 북쪽 해안 언덕 위에 있다. 손돌의 제사는 조선조 말까지 계속되어오다가 일제 강점 후 중단되었으나 1970년 이후 계속 지내오고 있으며, 묘는 1977년 박일양(朴一陽)씨 등과 면민들이 묘비를 세우고 치산(治山)하여 크게 단장하였다

한강과 마주한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에 있는 애기봉이 있다. 북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분단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빠트릴 수 없는 유적지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평양 감사와 기생 애기(愛妓)의 슬픈 사연이 전해 내려온다.

기생 애기와 평강감사가 봄의 파사로움을 만끽하며 사랑을 꽃피우고 있을 때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병자호란이 일어난다. 감사와 애기는 피난길에 올라 한양 길 수 백리를 걸어가야 했다. 애기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먼 길을 걷는 것은 힘겨운 노릇이었지만, 참고 견디어 개풍군

까지 왔다. 그러나 평양감사가 그만 오랑캐에게 잡혀 북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감사와 생이별한 애기는 혼자서 강을 건너 월곶면 조강리에 머물면서, 감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쭉갓 머리산 정상에 올라 치성을 드렸다. 그러나 님은 소식이 없고 애기는 병이 들어 쭉갓 머리산에 장사지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린다. 유언에 따라 동네 사람들은 애기를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 산을 애기봉(愛妓峰)이라 불러왔다.

지금 애기봉 정상에는 강 건너 북녘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실향민들이 향수를 달래려 자주 찾는 망향(望鄉)의 동산이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애기봉은 북

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한으로 맺힌 곳이라 하겠다.

또한 김포시 풍무동에는 인조의 아버지로 추존된 원종과 그의 비 인현왕후 구씨의 능인 장릉이 있다. 이 장릉은 쌍릉인데 능 앞에 각각 혼유석 1좌씩을 두었고 중간에 장명등을 세웠다. 능 남쪽으로는 문무석 한 쌍씩을 세웠으며 사적 제2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수도권의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대명포구는 김포 유일의 포구로 찾는 이들이 많다. 이곳에는 각종 어류를 판매하는 어판장, 횃집들이 많아 외지의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고 있다. 🐟

